



임효명 | 감신대

1. 서론

구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건의 전면에서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원역사(창 1-11장)의 경우 하나님은 등장인물 중 하나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반면 요셉의 이야기나 룯기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도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야기들의 플롯(plot)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인과율적으로 이어져있다. 하나님의 활동은 감추어져있고 사람들의 행동만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성서의

1) 본 논문의 내용은 HyoMyong Lim, *Portrait of God in Saul's Rise and Rejection*, 2010년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박사논문 가운데 일부를 확대 개정한 것이다.

화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등장인물들의 자율적 선택과 행동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엘리 가정의 몰락(삼상 4장)과 사울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여정(삼상 9장)의 두 이야기를 연구하며 이 질문들에 답변을 시도하려 한다. 필자는 선택된 본문에 신문학적 비평연구(new-literary critical approach)를 적용하여 플롯과 캐릭터, 본문의 공백과 모호성 등 본문의 문학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면밀히 읽을 것(close reading)이며, “이중인과율(dual causa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중인과율은 예헤즈켈 카우프만(Yehzekel Kaufmann)이 만든 용어로 어떤 한 사건에서 신과 인간 모두가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로 묘사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야이라 아미트(Yairah Amit)는 이중인과율을 따르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줄거리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흐르는데, 그 흐름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더해지거나 정보가 보류되어 있거나 본문에 공백(gaps)이 있을 때, 또는 사건들의 각기 다른 장(arena)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의 보고 등에 의해 깨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 그 이야기에 지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뉘앙스를 주는 상황의 축적, 다시 말하면 그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위로부터의 연출을 언급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을 통해 화자는 사건밖에 있는 어떤 조직적인 구조로 독자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²⁾

본 연구의 대상 본문들은 아미트가 지적한 이중인과율을 따르는 이야

2) Yairah Amit, "The Dual Causality Principle and Its Effects on Biblical Literature," *Vetus Testamentum* XXXVII, 4 (1987), 392-93.

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인과율적으로 사건이 배열되었을 뿐 아니라 정보의 보류나 공백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로 시선을 이끌고 있다.

2. 엘리 가정의 몰락(삼상 4:1-22)

엘리 가정의 몰락은 화자(narrator)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혹독히 평할 때에 이미 예상된다.³⁾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삼상 2:12).

화자는 실로의 제사장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희생제물을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 자신의 혹평을 뒷받침한다(삼상 2:13-17).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관련된 죄에 성적 범죄를 더하고(삼상 2:22), 엘리는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을 돌이키려하나 그들의 완고함에 부딪히고 만다. 여기서 화자는 그들의 완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한다.⁴⁾

3) 성서의 화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51; David M. Gunn and Danna Nolan Fewell,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52-56; Yaira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93-102.

4) 만일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엘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엘리는 그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 책임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삼상 2:29)고 비난한다. 이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신명기사가의 삽입으로 보는 것이다. H. W. Hertzberg, *I & II Samu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37; P. Kyle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92;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Nashville: Thomas Nelson, 1983), 24 참조; 필자의 견해로는 편집사적 해석 외에도 현재본문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는 비난과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화자의 보고(삼상 4:18)를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비난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취한 제물의 고기로 비대하여졌고,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삼상 2:25).

마티티아후 체바트(Matitiahu Tsevat)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구약성서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⁵⁾ 하나는 모든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인 하나님께로 그 행동을 추적해 올라가는 것이고⁶⁾ 다른 하나는 아무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하나님이 행위의 제일 원인자가 될 때 이성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음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⁷⁾ 반면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는 면죄부를 주고 인간이 행위의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상은 깨어지고,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반 상식적인 행동과 그들이 거주하는 세상은 통제도 이해도 할 수 없게 된다.

... 심각한 죄악들, 지속적인 완고함들이 있는데 이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이미 예고되었거나 범죄자가 이미 경고를 받았을 때이다. 그러한 행동들은 말이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설명하려고하면, 오직 한 가지 원인 곧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는 때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초상을 뒤흔드는 힘이다. 그는 상식에 반하는 모든 행동의 원천이다.⁸⁾

엘리의 아들들은 체바트의 설명처럼 ‘상식에 반하는’ 완고함을 보인다. 그들은 엘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는데 화자

5) Matitiahu Tsevat, "The Death of the Sons of Eli,"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 (1964), 355-58.
6) 이와 같은 예는 엘리의 두 아들의 완고함 외에 바로왕의 완악함(출 7:3-4)과 시혼왕의 완강함(신 2:30),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킴(왕상 18:37)에서 찾을 수 있다.
7) 제 일 원인자는 선과 악 모두의 근원이 되고, 따라서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한다.
8) 체바트, 356.

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한다(삼상 2:25). 이러한 화자의 설명은 그들 행동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화자의 언급과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삼상 2:34; 삼상 3:12-13)은 이 후 사무엘상 4장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흡니와 비스하스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예언에는 그들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만의 드라마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불러온 사건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입되어 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무엘상 4장부터 전개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연관된 사건들은 일련의 원인과 결과로 서술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고(삼상 4:3),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흡니와 비스하스는 법궤와 함께 진으로 온다(삼상 4:4). 법궤의 도착에 시기충찬한 이스라엘은 다시 나아가 블레셋과 싸우나 또 다시 패하고 그 결과 법궤를 빼앗긴다. 그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음을 맞는다(삼상 4:11).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늙고 비대한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비스하스의 아내는 해산의 고통 중에 죽는다(삼상 4:18-20).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사무엘상 4장에 서술된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은 등장인물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판단,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신을 언급하고(삼상 4:3, 7-8) 하나님의 궤도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면에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활동만이 두드러진다. 만일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기록된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없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의 과정에서 흡니와 비스하스가 법궤와 함께 나가야 했던 전황과 장로들의 결정, 그리고 두 제사장의 죽음은 인과

을을 따른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화자는 엘리의 죽음도 마치 '사고사'인 것처럼 보고한다. 패전의 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법궤가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앉았던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자 화자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설명한다(삼상 4:18). 그러나 사건에 앞서 기록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도 않고,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없더라도 독자/청중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하여 본문의 공백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초청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공백은 블레셋전의 원인과 전쟁 중 사무엘의 부재이다.⁹⁾ 화자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삼상 4:1b)라고 보도하는데 이러한 서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인상을 준다.¹⁰⁾ 가나안 정복전쟁이후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국가의 억압대상이었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 세워졌다.¹¹⁾ 이를 감안할 때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도발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¹²⁾ 한편 사무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예언자로 세

9) 퓨얼(Donna Nolan Fewell)은 "Feminist Reding of the Hebrew Bible: Affirmation, Resistance and Transform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9 [1987], 77)에서 본문과 본문의 공백을 채워가면서 읽는 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문이 창조된다고 말한다: "Literary works constantly present 'gaps' or 'indeterminacies' that the reader must endow with meaning and it is by making constant interpretative jumps in order to make sense of the work that the reader, in conjunction with the work itself, can be said to create the text."

10) 프롤로브는 이스라엘이 "나가서...싸우려고"라는 4:1b의 히브리어구 מָאָרָא (리크라트, 만나서/나가서)는 블레셋의 호전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암시한다고 본다. 프롤로브, 114, 각주 16. 본 연구는 본문의 모호성과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본문 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묘사된 부분들은 사람들의 행동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위치시킬 수 있는 틈을 형성한다.

11) 사사기의 이야기는 죄-압제-회개-구원의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주변국가에 대한 압제가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행한다.

12) 헬라어역본(LXX)의 4장 1절은 $\text{καὶ ἐγενήθη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ἐκείναις καὶ συναθροίζονται ἄλλόφυλοι εἰς πόλεμον ἐπὶ Ἰσραηλ(카이 에게네세 엔 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이나이시 카이 수사 쓰로이존타이 알로플로이 에이스 폴레몬 에피 이스라엘/그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을 일$

워졌음에도 불구하고(삼상 3:20)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이후 수 십 년간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그의 부재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는다.¹³⁾

이러한 본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단서를 스피나(Frank A. Spina), 에슬링거(Lyle M. Eslinger), 그린(Barbara Green), 프롤로브(Serge Frolov) 같은 신문학 비평학자들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 되니라(לְכָל־יִשְׂרָאֵל דְּבַר־שְׁמוּאֵל וַיְהִי/바예히 데발 쉘무엘 레콜-이스라엘)” 라는 사무엘상 4장 1a에서 찾는다.¹⁴⁾ 에슬링거는 4장 1a에서 전달된 ‘사무엘의 말’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본다. 그는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다 보도한 후 화자가 곧 바로 그 예언을 실현시킬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한 편 스피나는 4장 1a를 부사절로 보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라고 읽는다. 그러나 사무엘의 예언의 말의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그의 예언을 이스라엘이 들어보려고도 않고 전쟁에 나간 것이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백성들이 그의 예언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전쟁 중 그의 부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¹⁶⁾

스피나의 주장의 근거는 4장 1a가 문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을 때’라는 부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관찰에 있다. 그는 ‘...의 말이 전파되니라’라는 표현뒤에는 항상 ‘이르시되(וַיִּסְרְבוּ, 레모르)’가 이끄는 예언의 내용이 따르는데 4장 1a는 이례적으로 내용이

오키니)로 시작함으로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은 그에 맞서 나간 것으로 서술한다.

- 13)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시기는 블레셋 전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도시들에 재앙을 일으킨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져 기랴여아림에 자리 잡은 후 20년이 지나서이다 (삼상 7:2-3).
- 14) 전통적으로 4장 1a를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고 4장 1b를 새로운 이야기 단위의 시작으로 보아왔다.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nd ed. (Oxford: Clarendon, 1960), 45; Hertzberg, *I & II Samuel*, 39-44; McCarter, *I Samuel*, 97.
- 15) Lyle M. Eslinger, *Kingship in Crisis*, 161-62.
- 16) Frank A. Spina, "A Prophet's 'Pregnant Pause': Samuel's Silence in the Ark Narrative (1 Sam 4:1-7:2),"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13 (1991), 59-73.

따르지 않는다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관찰은 4:1a가 동일한 용례의 다른 구절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5장 1, 4절; 사무엘상 15장 10절; 사무엘하 7장 4절; 열왕기상 6장 11절, 12장 22절, 17장 2절, 21장 17, 28절; 열왕기하 20장 4절 등은 주어가 모두 ‘야웨의 말씀’이고 ‘이르시되(אָמַר, 레모르)’에 이어 예언의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있다. 하지만 사무엘상 4장 1a의 경우는 ‘야웨의 말씀’이 아닌 ‘사무엘의 말’이 주어이다. ‘사무엘의 말’이 주어인 문장이 ‘야웨의 말씀’이 주어인 문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졌으므로 ‘이르시되+예언의 말씀’이 뒤따라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구조의 용례들이 그의 예언의 말씀의 공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귀절	여호와/하나님의 말씀이... + 임하여 이르시되+예언의 말씀 직접 인용
창 15:1	...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삼상 15: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삼하 7:4	...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상 6:11	여호와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상 12: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상 17:2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상 21:17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상 21:28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왕하 20:4	...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삼상 4:1a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니라 ¹⁷

그린과 프롤로브 역시 사무엘의 예언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 예언의

17) 동일한 구조를 보이기 위해 동일한 어휘를 쓴 필자의 사역임.

내용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나가 싸우라는 예언이었다고 주장한다.¹⁸⁾ 즉 엘리리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 가정을 몰락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때문에 홉니와 비스하스의 죽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사무엘의 예언이었다면,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까?¹⁹⁾ 여기서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자는 전쟁과 패배, 법궤 가져오기와 제사장들의 죽음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각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배열하고 있다. 즉 제사장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였으리라는 심증은 있으나 이야기 속에서 확증을 찾을 수는 없다.

법궤를 가져오게 된 상황도 주목을 요한다.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경위는 사무엘상 4장 3절에 대화체로 기록되어있다.²⁰⁾ 전쟁의 패배를 2절에서 보도하고 화자는 대화체로 전환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의 회의 장면을 전달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18) Barbara Green, *How Are the Mighty Fallen? A Dialogical Study of King Saul in 1 Samuel* (JSOTSup 365;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3), 114–18; Serge Frolov, *The Turn of the Cycles: 1 Samuel 1–8 in Synchronic and Diachronic Perspective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115.

19) 프롤로브는 4:1a에 기록된 사무엘의 전쟁을 부추기는 예언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시 장로들의 반응은(“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며 따라서 패전하였을 때 사무엘에게 물을 필요없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롤로브, 115, footnote 163.

20) 대화는 사건을 전달하는 시간(time of narration)을 늘이는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을 화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가 된다. Amit, 109–110.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한다는 신앙구조에서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추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법궤를 가져오자는 제안은 하나님께로 패배원인을 추적했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약성서의 다른 이야기들은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다음 순서였어야 함을 보여준다.²¹⁾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대신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한다. 법궤를 메고 올 제사장들이 흠니와 비스하스임을 고려할 때 장로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불확정성은 블레셋 전쟁의 원인에 대한 논의처럼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게 하긴 하지만 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유보하게 한다. 한 편 이스라엘 장로들의 능동적인 역할은 그들을 꼭두각시 인형같이 보는 것을 금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돌릴 수는 없게 한다.

엘리는 패전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하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삼상 4:18). 화자는 그의 죽음을 보고한 후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부연한다. 그의 노쇠함과 비대함이 그의 죽음을 부르긴 하였으나 엘리가문의 몰락에 대한 예언(삼상 2:34)은 다시 한 번 그의 죽음의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종합하면, 화자는 엘리 가정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건의 전면에 배치한 후, 그 예언이 실현되는 사건들은 사람들만의 드라마로 그린다. 하나님은 사건전체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 있

21)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 전쟁의 패인을 하나님께로 추적하고 기도하던 중 무리 중에 범죄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수 7:7).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할지 여부를 물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자 곧바로 누가 범죄 하였는지 찾아내려 한다(삼상 14:37-38).

을 뿐이며, 개개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은 정확히 지적할 수 없다. 각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의 여정에서도 나타난다.

3. 사울의 암나귀 찾기(사무엘상 9장)

사울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된다(삼상 9:3).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경위는 밝혀지지 않으며,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역시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그 암나귀들로 인해 사울이 집을 나서게 되며, 그가 그의 여정의 목적지인 사무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 암나귀들은 갑자기 되찾아진다(삼상 9:20). 화자는 사울의 여정 말미에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가사의한 암나귀들의 실종과 재출현의 근원지를 추측하게 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삼상 9:15-16)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도자로 세울 사람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암나귀들의 실종과 그들을 찾기 위한 사울의 여행, 일련의 실패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는 사환의 제안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여야했다. 따라서 사울의 기름부음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의 세부사항들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엘리가정의 몰락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블레셋

과의 전쟁, 전쟁의 패배,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옴, 또 다른 패배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채워질 큰 그림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두 에피소드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단지 예언이 사건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있을 뿐이다.

사울은 그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고 사건속의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의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행하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몰아간다. 처음 본문을 접하는 독자 역시 사울의 암나귀 찾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²²⁾

결국,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여부는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결정에 의존한다. 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울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때마다 다른 인물들의 재촉과 격려 혹은 도움을 받아 사무엘에게 이르게 된다.²³⁾ 사울의 암나귀 찾기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상 9장 4절이 잘 보여준다.

그가 ... 찾지 못하고... 그 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한지라

연이은 헛수고로 인해 사울이 암나귀 찾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 실제로 사울은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삼상 9:5). 그러나 그의 제안에 그 때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

22)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시는 것(9장)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사무엘의 부정적인 태도(8장)와 관련이 있다. 8장은 백성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사무엘의 명령 불복으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관한 연구는 임효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38-71을 참조하라.

23) 각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향(influence)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제력보다는 관계와 영향력으로 보는 연구로는 Anna Case-Winters, *God's Power: Traditional Understanding and Contemporary Challeng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제안한다(삼상 9:6). 거기에 더하여 그 사환은 선지자에게 줄 은 사분의 일 세겔을 ‘우연히’ 가지고 있었다. 사울은 사환에게 설득되어 길을 떠난다. 가는 길에 동네 소녀들이 ‘우연히’ 마주쳐 그들에게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삼상 9:11-13). 사환의 제안, 그가 지니고 있던 사분의 일 세겔, 그리고 동네의 소녀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사울을 그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가고, 사울은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무엘에게로 도착하고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다.

종합하면, 사울의 여정은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 극중 인물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나귀의 실종과 ‘펼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축적이 사건 속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한다. 그러나 엘리 가정의 몰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은 감추어져 있다.

4. 결론: 이중인과율에 따른 이야기 패턴과 그 신학적 의미

엘리 가정의 몰락과 사울의 암나귀 찾기는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가 된다. 첫째, 둘 다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블레셋전은 어떤 계기로 발생하였는지 불확실하며,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어떻게 실종되었는지는 설명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공백은 본문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의해 제한되긴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리이다. 사무엘상 4장에 서술된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은 세 가지의 두드러진 공백—엘리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블레셋전의 원인, 블레셋 전쟁시 사무엘의 부재—을 가지고 독자들의 참여를 초청한다. 이들 공백들에 반응한 스피나, 에슬링거, 그린, 프롤로브의 제안은 본문의 공백과 독자의 역할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며 그들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는가에 따

라 자신의 독특한 본문을 창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두 사건 모두에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추적해 갈 수 있는 예언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예언은 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사건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같이 그 존재를 의식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본문의 여백과 모호성 그리고 극중 하나님의 부재와 등장인물들의 능동적인 활동 등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의 진술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려는 모든 노력을 재검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예언은 이야기의 큰 그림만 알려주고, 제사장들의 죽음과 사울의 기름부음이라는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등장인물들의 자율적인 행동과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려진다. 등장인물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물이 예언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이중인과율).

넷째, 엘리 가정을 심판하고 사울을 기름 붓도록 사무엘에게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명백히 표현되었음에도 그 사건들의 전개 과정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강제적인 존재가 아닌 사건의 배후에서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또는 유인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이해이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거나 유인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면 때 “전지전능”이라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며 계획을 수정하면서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회하여 가게 할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⁴⁾

5. 참고문헌

임효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46집(2012년 12월), 38-71.

Amit, Yairah, "The Dual Causality Principle and Its Effects on Biblical Literature," *Vetus Testamentum* XXXVII, 4 (1987), 392-93.

_____, *Reading Biblical Narra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Case-Winters, Anna, *God's Power: Traditional Understanding and Contemporary Challeng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Driver, S. 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nd ed. (Oxford: Clarendon, 1960).

Eslinger, Lyle M., *Kingship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Bible and Literature Series, 10; Sheffield: Almond Press, 1985).

Fewell, Donna Nolan, "Feminist Reading of the Hebrew Bible: Affirmation, Resistance, and Transform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9 (1987), 77-87.

Freedman, Amelia D., *God as an Absent Character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terary-Theoretical Study*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05).

Frolov, Serge, *The Turn of the Cycles: 1 Samuel 1-8 in Synchronic and*

24) 인간과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이해는 과정신학자들에 의해 이미 시도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필자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50의 각주 21과 그 본문을 참조하라.

- Diachronic Perspective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Green, Barbara, *How Are the Mighty Fallen? A Dialogical Study of King Saul in 1 Samuel* (JSOTSup 365;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3).
- Gunn, David M. and Fewell, Danna Nolan,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ertzberg, H. W., *I & II Samu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Klein, Ralph W., *I Samuel* (WBC 10; Nashville: Thomas Nelson, 1983).
- McCarter, P. Kyle,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 Miles, Jack, *God: A Biography* (New York: Knopf, 1995).
- Spina, Frank A., "A Prophet's 'Pregnant Pause': Samuel's Silence in the Ark Narrative (1 Sam 4:1-7:2),"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13 (1991), 59-73.
- Sternberg, Meir.,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Tsevat, Matitiah. "The Death of the Sons of Eli."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 (1964), 355-58.

검색어

사무엘

엘리

사울

신문학 비평

예언

Dual Causality, Textual Gaps and Their Theological Implication

Hyo-Myong Lim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h.D

In the Hebrew narratives God is often portrayed as orchestrating events behind the scenes. When God recedes into the background, human characters are granted a wide scope of initiative and the plot itself flows as a series of cause and effect. If God operates behind the scenes and human actions take up a conspicuous place, how are we going to explain the cause of an event in terms of the roles that the human and the divine characters play?

To answer the question raised above, I have chosen 1 Samuel 4(the destruction of the Elides) and 1 Samuel 9(Saul's journey to find lost donkeys) as texts to be closely examined. The selected texts share two

www.kci.go.kr

characteristics in common, which are critical to this study. Firstly, the plots of the narratives flo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ausality. Each movement in the plot is connected as cause and effect. Secondly, God's implication in the narrated events is indicated in the prophecies which are placed before or after the narratives. The downfall of the Elides is announced before it happens, and God's sending of Saul to Samuel is revealed at the end of Saul's journey. In reading the texts, I use the new literary critical approach, paying attention to the plot, characterization, textual gaps, textual ambiguity and indeterminacy.

A close examination of the texts reveals that the prominent textual gaps--the ways in which God's will for the Elides and Saul, which is proclaimed in the prophecies, is to be fulfilled, the cause of the war against the Philistines, and how the donkeys are lost and found--call for the reader's active participation in creating the meaning of the story. In filling the gaps with imagination in the reading process, the readers, being aware of the prophecies, are urged to find God's invisible hand in the events. Yet, due to the causal flow of the narratives and the prominent role of human characters, God's power is understood as not coercion but influence or 'seduction' as seen in Saul's journey toward Samuel. Thus both the divine and the human cause an event(dual causality).

Key Word

Samuel

Eli

Saul

New literary criticism

prophecy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01일

www.kci.go.kr